

◆ 북미

- 미국, 모기지보험회사에 대해 “가장 부정적” 등급 산정
- 미국, IRS 캡티브보험사에 대한 과세정책변경계획 철회

◆ 유럽

- Zurich사, 순수익 고성장 달성
- Research and Markets, 폴란드 보험시장 전망 발표
- ABI, 생명보험 및 연금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발표

◆ 일본

- 간이생명과 니혼생명이 업무제휴 추진
- 대형 손보사,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 확대
- 탄소배출권 거래 은행 및 보험회사 본체 업무로 인정

◆ 중국

- 중국생명(中國人壽), 보험중개시장 진출
- 중국, 오염 과다 배출기업 보험가입 의무화
- 중국, 대형재해보장보험 정부와 보험업계의 공동노력 필요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모기지보험회사에 대해 “가장 부정적” 등급 산정

- 미국 S&P사는 등급 산정에 대한 2008년 2월 15일 고시에서 몇몇 미국의 모기지보험사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mostly unfavorable)” 등급을 책정했다고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악화와 모든 유형의 모기지(프라임, Alt-A, 서브프라임) 성과의 악화로 인해 모든 모기지보험사의 2005, 2006, 그리고 2007년에 발생한 손실비용에 대한 기대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 심지어 2008년에 실시한 모기지대출도 주택가격 하락, 95% 이상의 주택 담보대출비율로 발행된 모기지에 대한 신규보험의 과중으로 인해 수익성이 나쁘다고 평가됨.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모기지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설정과 언더라이팅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S&P는 밀접한 감시조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다음은 S&P의 등급조치와 사유를 밝힌 모기지보험사임.
 - Genworth Financial Inc.의 모기지보험자회사
 - PMI Group Inc.
 - Radian Group Inc.
 - Triad Guaranty Inc.
 - United Guaranty Corp.
- 다음은 등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 모기지보험사임.
 - California Housing Loan Insurance Fund
 - CMG Mortgage Insurance Co.
 - MGIC Investment Corp.

(Standard & Poor's, 2/15)

□ 미국, IRS 캡티브 보험사에 대한 과세정책 변경계획 철회

- 미국 국세청(IRS)은 캡티브 보험사에 대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철회했음.
 - 미국 하원의원인 Patrick Leahy와 Peter Welch는 IRS가 버몬트와 기타 주에서 캡티브 보험사에 대한 과세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규정 변경안을 철회하는 결정을 알려왔다고 함.
 - IRS 규정변경안은 대형사들이 이용하는 자가보험의 한 형태인 캡티브 보험사에 대해 결합자회사에 대한 결합세금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변경안에 따르면 캡티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을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 버몬트 등의 주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변경안이 캡티브 보험산업을 미국외 지역으로 몰아낼 것으로 우려했음.
 - 만약 캡티브 보험회사들이 결합된 그룹내의 타기업의 보험을 인수할 경우, 변경안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가 마치 두 회사가 하나의 실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록될 것을 요구함.
 - 이러한 조치는 캡티브 보험회사들이 주보험감독관이 요구하는 준비금회계법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듦.
- 일부 주 하원의원들은 이러한 변경안이 미국 경제와 보험산업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해 왔으며, 현재 캡티브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보험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었음.
 - 버몬트주에는 캡티브 보험사들이 세계 3번째로 많으며, 지난해 주세금으로 약 23백만 달러를 냈고 약 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금번 철회소식은 보험업계에 환영을 받고 있음.

(Insurancejournal, 2/21)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Zurich사, 순이익 고성장 달성

- 스위스의 보험사인 Zurich Financial Services Group은 2007년 순이익이 5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2% 증가하며, 모든 사업 영역에서 높은 성장을 거두었다고 발표함.
 - 투자 및 영업 등에 따른 수익은 전년대비 10% 상승한 66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1.0%를 기록하였음.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57억 달러로 4% 가량 성장하였고, 합산비율은 95.6%를 기록하였음.
 - 글로벌 생명보험 영역의 신계약액은 35% 성장한 729백만 달러를 기록함.
- 동 사의 CEO인 James J. Schiro는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강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에 힘입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함.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Zurich사의 이사회는 주당 15 CHF의 배당을 제안했으며 이는 총 수익의 32%에 해당함.
 - 또한 "자본금 운영계획의 일부로서 22억 CHF(약 20억 달러)의 주식을 2008년 내 재매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2007년 12억5천만 CHF(약 10억 달러)의 주식 재매입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임.
 - Schiro는 배당과 주식재매입은 그룹의 주식장기투자자의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동사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이끌어 내었다고 지적함.
- Schiro는 또한 향후에도 전략적 추가 M&A를 통해 신고객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제공 및 판매채널 능력을 강화하여 수익성 있는 성장 기회를 가진 곳을 목표로 글로벌 성장 능력 극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Insurancejournal, 2/14)

□ Research and Markets, 폴란드 보험시장 전망 발표

- Research and Markets의 최근 시장조사보고서 “폴란드 보험시장 전망 (2008~2012)”에 따르면 폴란드의 보험산업은 생명보험 부문이 선도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의 2006년 생명보험 총 보험료는 210억 PLN(약 69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손해보험 분야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려 전년대비 4.85%의 보험료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으며, 폴란드 보험 산업의 주요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 폴란드의 보험회사는 국영사와 민영사로 구분되며, 폴란드 내에 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형태의 금융그룹이 다수 존재하나 아직까지 폴란드 보험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못함.
 - 폴란드의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생명/손해보험 경영을 제한함으로써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별도의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 많은 해외 보험회사들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국영보험회사가 여전히 폴란드 보험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 보험시장을 종목별로 전망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생명보험의 경우 2008~2012년 수입보험료 연평균성장률은 23.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방카슈랑스는 최근 생명보험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투자연계보험상품이 생명보험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동 부문에서의 예측기간(2008~2012년)동안 보험료 연평균성장률은 약 33%로 전망됨.
 - 손해보험의 경우 2008~2012년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은 7.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이 주로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동 부문에서의 예측기간 (2008~2012년)동안 보험료 연평균성장률은 약 7.46%로 전망됨.
 - 부동산 부문과 뮤추얼펀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폴란드 보험시장에 있어 가장 큰 두가지 도전적 요소임.

(Insurancenewsnet, 2/13)

□ ABI, 생명보험 및 연금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발표

- ABI(영국보험자협회)는 "Customer Impact Scheme" 사업의 일환으로 32개 보험회사의 2만 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Customer Impact Scheme"은 영국의 생명보험, 연금, 투자산업의 고객 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 3월부터 실시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은 FSA가 도입한 "TCF이니셔티브(Treating Customers Fairly Initiative)"를 보완함과 동시에 원칙에 근거한 규제에 좀 더 밀착하기 위해 설계됨.
- 만족도 조사의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됨.
 - 산업 평판 측면 : 생명 및 연금산업이 훌륭한 평판을 얻고 있다는 데 대하여 ‘강하게 동의함’과 ‘동의함’에 응답한 고객이 2006/07의 48%에서 53%로 증가함.
 - 회사에 대한 이미지 : ‘보험회사들이 안이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86%가 동의한 반면, ‘진심으로 고객에 대한 배려를 하는가’에 대하여 7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고객에 대해 공정한 처우를 제공하는가’에 대하여 85%가 동의하였음.
 - 소비자 옹호도 :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주변에 추천하겠다는 응답자가 53%로, 지난 해에 비해 응답비율이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판매 : 응답고객의 53%가 판매절차에 대해 ‘훌륭’ 혹은 ‘매우 양호’하다고 응답함.
 - 클레임 : 클레임 및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응답고객의 50%가 ‘훌륭’ 혹은 ‘매우 양호’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지난해의 53%에 비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컴플레인트 : 컴플레인을 제기한 3%의 응답 고객 중 10%만이 그들의 컴플레인을 ‘훌륭’ 혹은 ‘매우 양호’하게 처리한 반면, 57%는 처리가 미숙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 보다 컴플레인 처리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BI, 2/17)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간이생명과 니혼생명이 업무제휴 추진

- 우체국 민영화가 진행 중인 일본에서 종전의 우체국 조직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일본우정그룹은 간이생명보험과 니혼(日本)생명보험이 상품개발과 사무 및 시스템 구축 분야의 업무제휴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함.
 - 이는 니혼생명으로부터 의료보험 등 제3보험의 신상품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간이생명과 전국 2만 4천여 우체국 등 일본우정그룹의 경영 기반을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니혼생명보험의 니드가 일치한 것임.
- 간이생명은 니혼생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업성 보험을 판매할 것으로, 이미 협력 관계에 있지만 이번 업무제휴의 추진을 통하여 니혼생명이 상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나 노하우를 간이생명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임.
 - 보험의 인수 및 지급 관리 등 보험회사에서 핵심이 되는 사무시스템의 구축도 협력할 것이며, 상품의 리스크 관리나 임직원의 교류, 자산운용 등에서의 협력도 검토할 예정임.
- 간이생명은 빠르면 2010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영기반의 안정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의료보험 등 제3보험의 신상품을 개발 및 판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또한, 이들 신상품을 관리하는 사무 시스템도 니혼생명의 노하우를 도입할 계획임.
- 한편, 니혼생명은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우체국을 통한 폭넓은 영업망을 보유한 간이생명의 고객에 대해 자사의 의료보험이나 사망보장보험 등을 판매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니혼생명과 간이생명은 총자산이 각각 51조엔, 113조엔으로, 생명보험업계 상위 2사의 제휴는 업계구도를 크게 바꾸게 되는 만큼 생명보험회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마이니치신문 2/22)

□ 대형 손보사,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 확대

- 지난 22일 집계된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들의 2007년도 3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이 아이오이손해보험(Aioi Insurance)에서 675억 엔에 달하는 등 4사가 관련 손실을 기록하였음.
- 아이오이손보사는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을 920억 엔으로 전망하고 있어 1년 6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도쿄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을 산하의 자회사로 보유하는 미래아홀딩스도 관련 손실이 확대되는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손해보험회사들의 결산 실적에 영향을 미쳤음.
- 아이오이손보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자산담보부증권)를 1,062억엔 보유하고 있었지만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대부분 평가손 처리될 전망이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은 작년 9월말 시점의 252억 엔에서부터 동 12월말 시점에서 675억 엔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더욱이 2007 회계연도에 관련 손실은 920억 엔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2008년 3월말 40억 엔의 최종 적자(2007년 12월말은 161억엔의 흑자)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 동 사의 시다 타카오 상무는 ‘자산운용의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모든 리스크 관리의 근본적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관련 손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망을 강조함.
 - 한편, 미래아홀딩스는 2007년도 4월~12월말에 63억 엔의 손실을 기록함.
- 수입보험료는 아이오이손보사를 제외한 상위 5개사에서 감소세를 보였는데, 수입보험료의 50%에 달하는 자동차보험이 국내 신차판매의 저조로 정체되었으며, 화재보험 또한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설 주택착공 건수 감소로 정체됨.

(FujiSankei Business / 2/23)

□ 탄소배출권 거래 은행 및 보험회사 본체 업무로 인정

- 지난 20일 발표된 금융청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상품거래소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본체에서 온실 배출가스 배출권 거래를 취급하는 것을 인정함.
- 은행에 의한 주식보유 제한도 완화하고, 경영이 부진한 기업을 개선하여 전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업인수를 은행 자회사로 인정함. 또한, 주식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함.
- 이러한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은 일본 금융시장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일본에 거래시장이 없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금융상품거래소가 본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함. 금융심의회(수상의 자문기관)가 작년 12월에 정리한 보고서에서는 자회사에 의한 관련 업무로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인정한다는 입장이었음. 금년 7월의 훗카이도 토우야호 서미트를 위하여 일본정부의 온실가스 삭감에 대한 대응입장을 나타내는 의미로 금융기관 본체에서의 취급을 인정함.
- 또한, 그룹의 자회사로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도 본체의 자산운용 업무로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인정함.
- 은행에 의한 주식 보유 제한은 개정안에서 자회사에 경영 재건과 재건 후의 전매를 목적으로 한 기업인수를 인정하고 미국과 유럽의 은행이 큰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재생 업무에의 참가를 가능하게 함.
-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함. 주식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산출식을 변경하여 현행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함.

(요미우리신문 2/21)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생명(中國人壽), 보험중개시장 진출

- 중국생명(中國人壽)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보험중개 시장에 진출 하였음.
 - 중국생명은 현재 보험중개회사인 ‘귀셔우안전보험중개회사(國壽安全保險經紀股分有限公司)’ 설립을 준비 중이며, 이로써 그동안 보험지주회사의 면모를 갖추기에 부족했던 ‘중개업무’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귀셔우안전보험중개회사는 중국생명이 중국석탄국제설계연구원과 합작으로 설립할 예정이며, 본사는 베이징(北京)에 위치하고 초대 최고책임자는 전임 중국생명 헤이룽장 (黑龍江) 분공사 총경리가 맡게 됨.
- 지난 2003년 신화생명(新華人壽)이 보험중개회사를 설립하였고, 중국인민보험공사 역시 산하에 보험중개회사를 두고 중개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국생명은 생보, 손보, 자산관리회사 등을 확보하는데 그쳐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중개시장 진출을 모색해 왔음.
- 최근 약 10여 년 동안 중국 보험중개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는데, 초기 수익성이 좋다는 평가가 나오자 일시에 수 많은 사업자가 난립하였고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었다가 수년 전부터 자체 구조조정을 거쳐 지금은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든 상태임.
 - 중국 보험중개시장은 2005년 최초로 순익을 거두었으며 지난 해(2007년)는 이익규모가 2.2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함.

(제일재경일보, 2/22)

□ 중국, 오염 과다 배출기업 보험가입 의무화

- 중국보감위와 환경보호총국(環保總局)이 지난 2월 18일 ‘환경오염 책임보험’ 강제가입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에 합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 부처가 서명한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오염물질 과다 배출 기업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도의견 발표일 이후 개인이 오염 과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부국장 판위(潘岳)는 "환경오염 책임보험 강제가입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며, 기업은 발생가능한 환경사고를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배상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며 강제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음.
 - 또한 "하지만 환경오염 책임보험 가입이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고 역설함.
- 환경보험 보험료는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오염사고 위험이 큰 기업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오염물질 과다 배출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커져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한편, 보험회사 측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의 환경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장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임.

(중경진보, 2/20)

□ 중국, 대형재해보장보험 정부와 보험업계의 공동노력 필요

- 중국에서는 해마다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설해(雪害)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음.
- 보감위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현재 보험회사가 설해지역에 지급한 보험금은 10.4억 위안으로 전체 경제손실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보험은 약 4천만 위안이 지급되면서 전체 농업보험의 4%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40%)이나 여타 개발도상국(30%)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보감위는, 대형재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상황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부분 재정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함.
- 보감위 내 대형재해 전문가는 "중국의 대형재해 손실보상 시스템은 가장 먼저 재해손실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수단을 이용한 보상보다는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함.
- 한편, 보험업계는 대형재해보험 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연속성을 갖추어야 하며, 모럴헤저드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간 이해조정과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음.

(금융시보, 2/19)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2.8(금)	08.2.15(금)	08.2.22(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14*	5.02	5.05	+0.03
	美 10년국채	4.03	3.64	3.77	3.80	+0.03
	英 10년국채	4.51	4.43	4.60	4.69	+0.09
	日 10년국채	1.51	1.42	1.46	1.46	-
주가	韓 KOSPI	1,897.13	1,696.57*	1,694.77	1,686.45	-0.49%
	韓 KOSDAQ	704.23	642.35*	651.57	653.12	+0.24%
	美 DJIA	13,264.82	12,182.13	12,348.21	12,381.02	+0.27%
	美 Nasdaq	2,652.28	2,304.85	2,321.80	2,303.35	-0.79%
	英 FTSE	6,456.90	5,784.00	5,787.60	5,888.50	+1.74%
	獨 DAX	8,067.32	6,767.28	6,832.43	6,806.29	-0.38%
	佛 CAC40	5,614.08	4,709.65	4,771.79	4,824.55	+1.11%
	日 Nikkei225	15,307.78	13,017.24	13,622.56	13,500.46	-0.90%
	中 상해종합	5,261.56	4,599.70*	4,497.13	4,370.28	-2.82%
	대만 가권	8,506.28	7,673.99**	7,876.37	8,108.71	+2.95%
	홍콩항셍	27,812.65	23,469.46***	24,148.43	23,305.04	-3.49%
환율	원/달러	938.20	942.00*	944.60	947.00	+2.40
	원/100엔	833.33	882.89*	876.74	882.20	+5.46
	엔/달러	112.58	106.69*	107.74	107.34	-0.40
	달러/유로	1.4722	1.4826*	1.4640	1.4813	+0.0173
	위안/달러	7.3041	7.1919*	7.1900	7.1410	-0.0490

주 : *는 2/5, **는 2/1, ***는 2/6 기준임.